이정후 '잭팟' 터뜨리며 샌프란시스코행

이정후(25)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시작한다.

13일 'OSEN' 에 따르면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 은 전날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했다. 4년 뒤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된 조건이다." 라고 보도했다.

▲ 이정후. 사진=키움

2017년 한국프로야구(KBO)리그 신인드래프트서 넥센에 1차 지명된 이정후는 KBO리그에서 통산 884경기 타율 3할4푼 65홈런 515타점 69도루 581득점을 기록했다. 2022시즌에는 타격 5관왕(타율, 출루율, 장타율, 타점, 최다안타)과 정규시즌 MVP를 석권했으며 2023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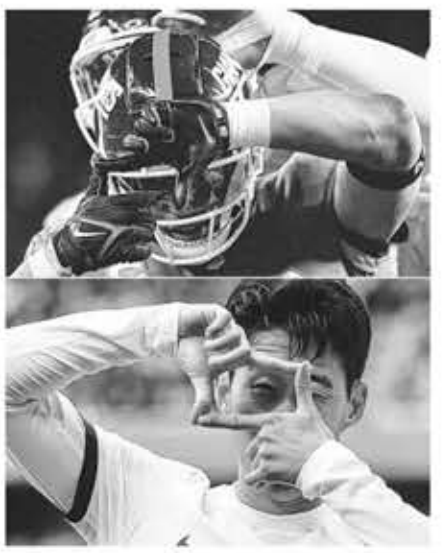
이정후 영입에 가장 열정을 보인 구단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였다. 지난 10월 피트 푸틸라 단장이 키움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이정후의 경기를 지켜보며 큰 관심을 드러냈다. 최근 들어 김하성의 소속팀인 샌디에이고 파드리도 김하성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최종 승자는 샌프란시스코였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소속의 샌프란시스코는 월드시리즈를 통산 8차례 제패한 명문 구단이다. 가장 최근 우승은 2014년이었고, 포스트시즌은 2021년 디비전시리즈가 마지막이었다. 2022년 81승 81패 3위, 올해 79승 83패 4위에 그치며 가을 무대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정후는 2017년 황재균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소속으로 빅리그 무대를 밟는 역대 두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NFL까지 퍼진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

미국의 내셔널 풋볼 리그(NFL)에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가 퍼졌다.

13일 'OSEN' 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자신의 SNS에 NFL 선수가 자신의 시그니쳐 세리머니인 '찰칵 세리머니' 를 따라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NFL UK' 계정도 이 사진을 공유했다.



▲ 세이콴 바클리가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하고 있다(위 사진). 아래는 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 사진=토트넘 홋스퍼

해당선수는 뉴욕 자이언츠의 러닝백 세이콴 바클리(26)다. 자이언츠는 전날 뉴저지주 홈구장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3-24시즌 NFL week 13' 에서 그린베이 패커스를 24-22로 이겼다. 바클리는 두 번의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뒤 팀의 승리를 이끌며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 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바클리는 183cm/105kg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한다. 육중한 몸에도 러닝백답게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한다. 학창시절 농구, 미식축구, 멀리뛰기, 투포환 등 다양한 운동을 했지만 축구는 하지 않았다.

NFL은 매년 영국에서도 경기를 열고 있다. 토트넘 홈구장 홋스퍼 스타디움에서도 경기가 열린다.

토트넘 공식 계정은 "세이콴이 뉴욕 자이언츠에서 터치다운을 한 후,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했다." 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과거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세리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중 골을 넣으면 좋은 추억이 되고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찰칵' 세리머니를 하게 됐다." 고 말했다.

조코비치 "젊은 도전자들이 내 안의 '야수' 깨워"

▲ 노바크 조코비치. 사진=wsj.com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내년 5월 37세가 된다. 하지만 그는 올해 4대 메이저 대회 중 3개를 제패하고 투어 파이널까지 우승했다. 그는 젊은 도전자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야수' 를 깨워 성공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11일 '동아일보' 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전날 방송된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 에 출연해 "저를 상대로 최고의 테니스를 치고 싶어 하는 젊은 선수들의 열정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 며 "제 안에 있는 야수를 깨우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차세대 황제' 로 불리는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와 올 해 4번 만나 3번을 이겼다. 알카라스가 승부에 대한 부담으로 너무 긴장해 전신 경련을 일으킨 프랑스오픈 4강도 포함된다.

유일한 패배는 윔블던 결승전이다. 당시 알카라스에게 왕좌를 내줘 캘린더 그랜드슬램(한 해 4대 메이저대회 모두 우승)을 놓쳤다.

조코비치는 맞대결에서 크게 앞섰음에도 약관의 라이벌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본 선수 중 가장 완벽한 선수" 라고 알라카스를 칭찬한 조코비치는 윔블던 결승에서의 패배를 이후 하드코트에서 열린 신시내티 오픈과 US오픈 우승의 원동력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1503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5에 있습니다)

9				8			5	
		3	5	7				
	4				9	8		
1	6				7			9
						6	7	
5	9		3		1			4
	8	2					4	
				5	3	7		
		6	4			3		2

낱말퍼즐 정답

1 전	당	포	■	2 일	광	소	3 독
무	■	■	4 강	행	■	■	후
후	■	5 삼	촌	■	6 거	■	감
7 무	8 침	■	■	9 아	동	복	■
■	11 대	12 청	봉	■	■	13 판	14 자
15 풍	■	탁	■	16 양	지	■	급
악	■	■	17 반	말	■	■	자
18 산	간	벽	지	■	19 역	부	족